Hello! I am Sister Marian Madden. I was born in 1933 to Charles and Grace Madden in Pittsburgh, and had three older siblings, Margaret Madden Jones, Charles, and Frances Madden O'Toole. We lived in Sacred Heart Parish in Shadyside where I attended Grade and High School taught by the Sisters of Charity of Seton Hill.

After graduating from high school, I worked for three years in the 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Catholic Schools for Msgr. Thomas Quigley and Fr. John McDowell, who were great bosses. I developed fine writing skills from typing their articles. I also enjoyed bowling three times a week.

In 1954 I experienced a call from Jesus to become a Sister and chose to enter the Sisters of Charity. On September 8th, I entered with 33 other postulants. This photo depicts several of our wonderful group.

After teaching at the elementary level for 5 years and at the high school level for 10 years I completed my MBA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at the University of Notre Dame in the state of Indiana. I became the Director of Student Financial Aid at Seton Hill College. Later I ministered in Religious Education at dioceses in Ohio. Sister Gertrude Foley encouraged me to look into becoming the Vicar for Religious in the Diocese of Wheeling-Charleston in the state of West Virginia. There I worked with Bishop Schmitt.

While in West Virginia I spent time in Rome and Assisi in 2006 with Sister Ann Infanger. This photo of the two of us was taken in Assisi.

In 2007, after 10 years in the Diocese of Wheeling-Charleston I retired and resided at Doran Hall in Greensburg. I early 2022 I moved to Caritas Christi, our motherhouse, which is a very pleasant place to live.

Since I was born on my sister Fran's third birthday, she and I always celebrate together. Here we are ready to spend time with family and friends for a happy gathering.

안녕하세요! 메리언 매든Marian Madden 수녀입니다. 저는 1933년 피츠버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찰스 매든Charles Madden과 어머니 그레이스Grace 슬하에 제 위로 마가렛 매든 존스Margaret Madden Jones, 찰스Charles, 프랜시스 매든 오툴Frances Madden O'Tool, 세 남매가 있습니다. 우리는 섀디사이드Shadyside에 있는 성심Sacred Heart 본당에 다녔고, 학교도 씨튼 수녀님들이 가르치는 성심 본당 학교와 고등학교에 다녔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3년 동안 가톨릭 학교 교육감실에서 토마스 퀴글리Thomas Quigley 몬시뇰과 존 맥도웰John McDowell 신부님과 함께 일했습니다. 아주 훌륭한 분들이었지요. 두 분의 글을 타이핑하면서 제 글쓰기 실력을 키웠습니다. 또, 일주일에 세 번은 볼링을 즐겼습니다.

1954년, 수도자가 되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랑의 씨튼 수녀회에 입회하기로 했습니다. 9월 8일 다른 청원자33명과 함께 수녀회에 입회했습니다. 사진에 있는 수녀님들이 바로 우리 그룹 수녀님들 중 몇 분입니다.

초등학교에서 5년, 고등학교에서 10년 동안 가르친 후에 인디애나주 노틀담 대학교University of Notre Dame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고 씨튼힐 대학에서 학생 재정 지원 담당을 맡았습니다. 그 후, 오하이오주에 있는 여러 교구에서 종교 교육을 했고, 걸트루드 폴리Gertrude Foley 수녀님의 권유로 웨스트버지니아주 윌링-찰스턴Wheeling-Charleston교구에서 수도자 담당 국장을 맡아 슈미트Schmitt 주교님과 일하게 되었습니다.

웨스트버지니아에서 지내던 중 2006년에는 앤 인팽거Ann Infanger 수녀님과 함께 로마와 아시시를 방문했습니다. 오른쪽은 앤 수녀님과 함께 아시시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윌링-찰스턴교구에서 10년간의 사도직을 마치고 2007년에 은퇴하여 그린스버그 도란홀로 와서 지냈고, 2022년 초에는 다시 살기 좋은 우리 모원 카리타스 크리스티로 옮겼습니다.

저는 언니 프랜시스와 생일 같아요. 언니가 세 살이 되는 생일에 제가 태어났지요. 그래서 언니와 저는 항상 함께 생일 파티를 합니다. 옆 사진처럼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행복한 파티를 할 준비가 되어 있지요.